

## PA-62

## 지황 조직 배양묘와 일반종근의 재배적 특성

김영상<sup>1\*</sup>, 김기현<sup>1</sup>, 윤철구<sup>1</sup>, 이명희<sup>1</sup>, 지영희<sup>1</sup>, 김익제<sup>1</sup>, 김영호<sup>1</sup>

<sup>1</sup>충청북도농업기술원

## [서론]

지황(*Rehmannia glutinosa* Libosch)은 다년생 초본으로 온난한 기후에서 생육이 양호한 식물로 현재 국내 지황의 주산단지는 충남 금산, 전북 정읍, 경북 안동, 영주이다. 지황은 가공하지 않은 지황 뿌리를 생지황, 건조한 것을 건지황, 포제가공한 것을 숙지황이라 하며 효능으로는 항산화, 항알러지, 항염,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 현재 지황은 수입의존 10대작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배적지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직 배양묘와 일반 종근을 중부 내륙지대인 충북 음성과 고위도 지역인 제천에 정식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토강 품종으로 조직 배양묘와 일반 종근을 충북 음성은 6월 10일 제천 지역은 6월 12일에 재식거리를 30cm(조건) × 10cm(주간)으로 정식하였으며 재배관리는 지황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관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 수량구성요소, 뿌리 부패율 등을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 [결과 및 고찰]

지상부 생육은 일반 종근에 비하여 조직 배양묘가 초장 엽폭, 엽수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며, 지역간에는 제천지역에 비하여 음성지역이 생육이 더 좋았다. 조직배양묘는 화경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 종근은 95% 이상 화경이 발생하여 6회 화경 제거를 하였다. 총피해율은 일반 종근에 비하여 조직배양묘가 더 높았으며 지역간에는 제천에 비하여 음성지역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지하부 생육 중 뿌리직경은 조직 배양묘가 두꺼웠으며 근장은 일반 종근이 더 길었다. 뿌리 부패율은 일반 종근에 비하여 조직배양 묘가 적었으며 지역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하부 수량은 조직 배양묘가 일반 종근에 비하여 1.5배 정도 수량이 많았다. 재배지역간에는 전반적으로 제천지역에 비하여 음성지역이 생육은 우수하고 수량은 많았다.

\*(교신저자) E-mail, suanbo@korea.kr Tel. 043-220-5571